



예거 르쿨트르의 새로운 타임피스, 마스터 그랑 트레이디션 칼리버 948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에서 탄생한 유니버설 타임

1930년대 이후 예거 르쿨트르는 동시에 여러 시간대를 표시할 수 있는 타임피스를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듀얼 타임 시계에서 지오그래픽 시계와 전설적인 칼리버 948 월드 타이머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손쉽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선보여왔으며, 2022년에는 유니버설 타임에 예술적 가치를 더한 위대한 걸작으로, 그랑 메종의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 진귀한 수공예™) 아틀리에 장인들의 뛰어난 기교로 장식된 마스터 그랑 트레이디션 칼리버 948.

- 예술성과 기술력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월드 타임 컴플리케이션
- 매뉴팩처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 진귀한 수공예™) 아틀리에의 여러 기술이 결합되어 70 시간 작업 시간이 소요된 동형 오픈 워크 에나멜 다이얼
- 60 초 주기로 회전하며, 24 시간 주기로 다이얼을 한바퀴 회전하는 유니버설 투르비용

시간대를 표시하는 기능은 유서 깊은 타임키퍼 역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도입된 컨셉이지만, 모든 시간 측정은 천문학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루 24 시간의 흐름은 태양 주기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자전하는 지구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의 궤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초창기 항해사와 탐험가들은 지구상의 위치에 따라 해가 뜨거나 지는 시간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뒤이어, 18세기 해상 무역의 발전과 19세기 철도 시대의 서막이 오르며 표준화된 시간, 즉 특정한 지리학적 위치에서 같은 시간을 사용하고 글로벌 표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1884년에 개최된 국제자오선회의(International Meridian Conference)에서 런던 소재 그리니치 천문대가 전세계 시간 계산의 표준이 될 본초자오선(경도 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대 180°까지



계산되는 경도는 그리니치의 본초자오선(prime meridian)을 기준으로 각 지점이 동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리니치의 정오부터 다음 정오까지를 뜻하는 표준태양시 역시 그리니치를 기준으로 동서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오전(*ante meridian, am*) 및 오후(*post meridian, pm*)로 나뉩니다. 이후 해당 개념이 공식화되면서 경도 15° 단위로 정리된 24 개의 주요 시간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칼리버 948 은 플라잉 투르비옹이 탑재된 세계 최초의 월드 타임 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특히 유니버설 투르비옹은 평균 태양일 길이와 같은 24 시간 주기로 다이얼을 한바퀴 회전한다는 점에서 뜻깊은 의미를 가지며, 오토매틱 칼리버는 매뉴팩처에서 구상 및 개발되어 예거 르쿨트르의 탁월한 기술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예 예술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는 월드 타임 컴플리케이션에는 그랑 메종의 예술적 창의성과 탁월한 장식 공예 그리고 천재적인 기술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이얼에 표시된 월드 타임

타임피스 다이얼은 정교하게 얽힌 시간 측정 메커니즘을 암시하듯 여러 구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중앙에는 월드 타이머의 전통에 따라 북극에서 바라본 세계 지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평한 세계 지도와는 달리 동형 스켈레톤의 다이얼 베드 위에 북반구의 경도와 위도로 이루어진 지도를 구현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의 진귀한 수공예 공방인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 아틀리에에서 작업하는 숙련된 장인들은 화이트 골드판을 컷팅하고 샹르베 에나멜 장식으로 각 대륙의 형태를 완성합니다.

문자 그대로 ‘돌출된 윤곽’의 뜻을 지닌 샹르베는 약 2,500 년 전부터 시작된 고대의 특별한 에나멜 기법입니다. 장인은 뛰어난 기술로 먼저 원하는 이미지의 윤곽(이 경우 북극에서 본 대륙의 모양)에 정확히 맞게 금속의 움푹한 부분을 파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빈 영역은 원래 표면과 같은 높이가 될 때까지 여러 겹의 에나멜로 채워집니다. 이후 매우 높은 온도에서 열처리합니다. 완성된 에나멜 표면에는 대륙의 주요 풍경에 대한 미니어처 페인팅 디테일이 더해져 더욱 매력적이고 정교하게 표현됩니다.



새로운 마스터 그랑 트레이디션 칼리버 948 의 경우 돔 하나의 에나멜 작업에 55 시간의 작업이 소요됩니다. 직경이 25.5mm 에 불과한 각 다이얼은 약 70 시간의 세심한 작업이 소요되는 놀라운 미니어처 예술 작품입니다.

돔 아래, 바다를 표현한 반투명 블루 래커 디스크 형태의 다이얼 베드와 그 바로 밑에서 달의 영향을 받아 높이가 달라지는 바다의 특징을 형상화한 물결 모양 기묘세 패턴이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지도 한쪽 측면에 보이는 원형 표시창을 통해 60 초 주기로 회전하는 플라잉 투르비옹이 푸른 바다 위에 가볍게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안겨줍니다.

센트럴 다이얼은 모든 클래식 월드 타이머와 마찬가지로 그 주위를 둘러싼 링에 각 시간대를 대표하는 도시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도시 이름이 적힌 링의 외부에는 아플리케 숫자와 직사각형 인덱스를 장식한 24 시간 인디케이터 및 푸른 바다와 닮은 블루 래커 링에 레이저로 미닛 트랙을 새겨 넣은 두 개의 동심원을 이루는 고정형 링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지구를 표현한 돔형 지도는 유니버설 투르비옹 및 도시 이름이 적힌 링과 함께, 축을 중심으로 자전하는 지구처럼 24 시간 주기로 360° 를 회전하면서 각 도시의 현재 시간을 알려줍니다.

마스터 그랑 트레이디션 칼리버 948 은 가독성이 뛰어난 타임피스입니다. 도시 이름 옆에 있는 링에 표시된 시간이 해당 도시의 시간대를 나타냅니다. 작동 방법도 매우 간단해서 크라운을 이용해 시간을 설정하면 전세계 시간대 모두가 자동으로 동기화됩니다. 새로운 도시에 도착한 뒤 현지 시간을 설정하기 위해 크라운을 돌리면 분침과 초침은 멈추지 않고 정확하게 움직이되, 시침만 앞뒤로 한 시간씩 변경됩니다.

마스터 그랑 트레이디션 케이스는 다이얼과의 완벽한 조화가 돋보입니다. 80 개가 넘는 부품으로 구성된 오목한 베젤은 러그의 넓은 베벨과 대조를 이루며, 움푹 들어간 러그가 역동적인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마이크로블라스팅과 폴리싱, 새틴 브러싱 처리된 다양한 질감이 빛의 유희를 극대화합니다.

예술과 기계 기술이 균형을 이룬 마스터 그랑 트레이디션 칼리버 948 은 혁신을 추구하는 열정과 전통 계승 사이의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그랑 메종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상세 정보

마스터 그랑 트래디션 칼리버 948

케이스: 화이트 골드, 사파이어 케이스백

크기: 43mm x 14.13mm

칼리버: 기계식 오토매틱,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948

진동 수: 28,800 회

기능: 시/분, 유니버설 플라잉 투르비옹, 24 시간 인디케이터와 월드 타임 디스플레이 (24 개의 시간대)

파워 리저브: 48 시간

다이얼: 물결 모양 기요세 패턴 위의 반투명 블루 래커, 샹르베 에나멜 장식의 동형 스키텔론 구조

방수: 5 바(bar)

스트랩: 폴딩 버클을 장착한 악어 가죽

제품 번호: Q52834E1 - 2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STELLAR ODYSSEY 소개

2022 년 예거 르쿨트르는 인류의 시간 측정 방식의 근원에 있는 천문학적 현상에 경의를 표합니다. 매뉴팩처 초기부터 천문학적 기능은 단순한 형태의 문페이스부터 매우 복잡한 퍼페추얼 캘린더, 군시차, 스카이 차트, 달의 교점 주기와 근점 주기에 이르기까지 예거 르쿨트르의 정교한 시계 컬렉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태양, 달, 항성이라는 세 가지 시간 측정법을 모두 마스터한 그랑 메종은 천체 현상을 나타내거나 예측까지 하는, 가장 진보되고 정확한 메커니즘을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올해 예거 르쿨트르는 물입형 전시, 비주얼 아티스트 및 믹솔로지스트(mixologist)와의 콜라보레이션, 천체를 주제로 한 아틀리에 앙투안의 매혹적인 디스커버리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테마 이벤트 시리즈, 스텔라 오디세이(Stellar Odyssey)를 선보입니다. 스텔라 오디세이를 통해 손목 위의 경이로운 마이크로 메커니즘으로 재해석된 우주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